

현대인이 잃어버린 반쪽 환기시키는 동물 신화들

신화 속에 깃든 동물의 상징성

김진경 | 시인 · 전동중학교 교사

흔히 신화 속 동물 하면 용이나 유니콘 같이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 낸 신비한 동물들을 연상하게 마련이다. 이런 동물들은 무척 많다. 중국의 《산해경(山海經)》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상상의 동물들이 등장하고,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는 《상상동물 이야기》(남진희, 까치)에서 서양의 상상동물 이야기를 모아놓았다. 아마도 세계의 신화에 등장하는 신비한 상상동물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수십 권의 두꺼운 책으로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나 그 신비한 상상동물들은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의 부피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의미를 던지는 것은 신화 속에 등장하는 평범한 동물들이다. 이 동물들은 주로 인류가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시기에 형성된 신화 속에 자연의 모습 그대로 등장한다. 이 동물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동물이 되려는 욕구 '늑대인간' 류의 이야기는 동서양을 불
보여주는 돌간족의 신화 문하고 널리 퍼져 있다. 그리고 심심찮
게 영화화될 만큼 근대인의 관심을 끌
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보름달이 뜨는 밤에 늑대로 변하는 인
간의 이야기는 대개 음산한 저주로서, 비극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어느 시대나 인간이 동물로 변하는 것은 음산한 저주고 비
극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한 사람에게 잘 키운 딸이 있었다. 이 소녀가 다 성장했는데 어느 날 계속해서 울기 시작했다.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울었다. 마침내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아가야, 도대체 무엇이 너를 괴롭히는 거냐? 너 혹시 아버지 혼령으로 변하고 싶은 거냐? 아니면 어떤 동물로? 그레 곰으로 변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울기만 하는 거지?’ 딸은 ‘예, 나는 곰이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레 그렇다면 곰이 되거라’ 하고 아버지는 말했다. 그러자 딸은 곰으로 변했다.”

이 돌간족의 신화에는 동물이 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나타나 있다. 여기서 동물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영웅이 되는 영예로운 행위다. 적어도 수렵 채취 신화의 시대에는 그랬다. 동물로 변하는 것이 저주고 비극인 것은 근대의 특수한 관점인 것이다. 근대는 주

지하다시피 이성의 시대다. 이성을 절대시해 인간에게 내재하는 동물성을 끊임없이 억압하고 제거해 가려 했다. 따라서 늑대인간 영화 속에 그려진 음산한 저주와 비극적인 모습은 근대 이성이 인간의 동물성에 내린 심판과 다름없다.

근대이성의 심판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과연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 되려는 욕구 억압돼 동물이고 인간의 동물성은 이성에 의
해 억압되고 제거돼야 한다’는 따분한
교훈을 얻기 위해 늑대인간 영화를 보러 가는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일상생활 속에서 분 단위로 초 단위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는 그 진절머리나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라면 결코 우리는 영화관에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늑대인간을 보러 영화관에 가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는, 동물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 때문이다. 이 간절한 욕구는 다행스럽게도 근대 이성이 내리는 심판에 의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감춰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동물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를 은밀히 즐기는 것이다.

동물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는 그러나 근대 이성이 내린 준엄한 심판처럼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성이 세계를 대상화하면서 저질러온 수많은 전쟁과 학살, 환경파괴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면서 동시에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다. 자연에 속한 존재로서 온몸으로 자연을 느끼는 동물이야말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잃어버린 반쪽이 아닐까? 인간이 죽으면 영혼이 산에 있는 동물신의 세계로 가는데 후손들이 필요로 할 때 가족을 쓰고 동물이 돼 인간 세상에 온다는 수렵민들의 신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 ■



김진경씨는 서울대 국문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동중학교 교사로 재직중이다. 《갈문리의 아이들》《고양이 학교(전5권)》《은행나무 이야기》 등을 펴냈다.